

칼빈의 목회관

- 그 특징과 역사적 영향 -

李 良 浩*

I

칼빈 당시의 제네바에서는 신정 정치가 실시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칼빈은 제네바에서 아무 관직도 맡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559년까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칼빈은 공식적으로는 제네바의 목회자일 뿐이었다.

칼빈은 제네바의 한 목회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의 신학과 목회는 제네바와 유럽과 나아가서 전세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는 최근에 쓴 「칼빈전」에서 “칼빈은 서양 문명이 그 특징적 형태를 가지기 시작한 근대의 여명기에 개인과 제도의 전망을 변화시킨 유럽사의 배자적 인물(A Seminal Figure) 임이 입증되었다”¹⁾ 하고 말했다. 또한 독일의 종교 사회학자인 트렐취(Ernst Troeltsch)는 기독교가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단 두 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중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주의적 종합을 통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근대 초기 칼빈주의를 통해서였다고 했다.²⁾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회사 부교수

1) Alister E.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A Study in the Shaping of Western Culture* (Oxford: Basil Blackwell, 1991), xi.

2) Cf. *ibid.*, xii

II

칼빈은 종교 개혁의 제2 세대로서 독창적인 사상가라기보다 종교 개혁의 제1 세대의 사상을 체계화한 사람이었다. 칼빈의 목회관을 이전의 종교 개혁자들의 목회관과 비교해 보면 칼빈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은 거의 없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루터나 부처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고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은 칼빈의 공헌이었다.

칼빈의 목회관은 그의 교회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보다 우리의 어머니이다. 칼빈은 이 어머니가 “우리를 태 속에 품고 낳고 그의 가슴 속에서 우리를 기르고 마침내 우리가 가사적인 육체를 벗고 천사들처럼 될 때까지(마 22 : 30) 그의 지킴과 지도 아래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생명으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다”³⁾ 하고 말했다.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기르는 방편이 말씀과 성례이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과 성례를 교회의 두 표지라고 보았다. 말씀은 듣는 것이라면 성례는 보는 말씀이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목사의 직임 가운데 첫째 가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직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의 참된 목회자가 아니다.”⁴⁾ 그리스도는 “그들의 입이 자기의 입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입술이 자기의 입술로 간주되기를 원한다.”⁵⁾ 칼빈은 하나님을 대언자로 세운 이유를 이렇게 열거했다. 첫째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용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존중을 선포한 것이다. 둘째로, 우리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듣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한다면 지체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흠으로부터 나온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아무 것도 우리보다 낫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의 사역에 순종을 보인다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을 가장 잘

3) Inst IV i. 4

4) CO 6. 419

5) Comm. Isa 11 4

입증하는 것이다.”⁶⁾ 세째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유대 속에 있을 때 상호 사랑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사역자를 경멸하며 그들이 쓴 주석을 읽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도우들이 경멸되기를 원치 않는다.⁷⁾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말씀 속에서 매우 빛나므로 그의 종들을 통해 말씀할 때마다 마치 그가 우리와 대면해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 의해 감동되는 것이 마땅하다.”⁸⁾ 칼빈은 가장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주님은 참되고 신실한 교사들로 하여금 영적 양식으로 우리를 양육한다고 말한다.⁹⁾ 따라서 목사의 직임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직임이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많은 중요한 은사들 중에서 독특한 특권은 그가 사람들의 입과 혀를 자신을 위해 성별하고 그것들 안에서 자신의 음성이 울리게 한 것이다.”¹⁰⁾

그리스도는 설교자의 입이 곧 자기의 입으로 간주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설교자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된다. 그러나 구별된다. 이는 외적 말씀이 성령의 힘에 의해 생명이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무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¹¹⁾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결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아무 것도 안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엇보다 먼저 학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사역자가 결코 되지 못할 것이다.”¹²⁾ 예언이란 성서에 대한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다.¹³⁾ 그래서 “선하고 신실한 목자의 직임은 단순히 성서를 설명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을 더하기 위해

6) Inst. IV.iii 1.

7) Comm. Acts, 8. 31.

8) Comm. Hag 1 12.

9) Comm. Amos, 8 11-12

10) Inst. IV i 5

11) Comm. Ezek 2 2.

12) Serm. Deut 5 23-27

13) Comm 1 Cor 14 6.

진지함과 예리함을 가져야 한다”¹⁴⁾ 하고 칼빈은 말했다.

칼빈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의무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평가에 있어서 바보들”이 되며 “그리고 아동들처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되기를 요구하신다고 칼빈은 주장했다.¹⁵⁾ 어떤 목사가 회중에게 가르칠 것을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회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 자세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순종”을 나타내야 한다.¹⁶⁾ 그렇다고 해서 회중이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목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은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우리에게 속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할 때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가 있다.”¹⁷⁾ 하고 칼빈은 말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진리인지를 숙고할 책임이 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이 왜 혹은 어떻게를 모른 채 지나치면서 우리가 말한 것을 모두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이 진실인지를 부지런히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 의해 판단을 받는 것이 모든 목사의 일반적 상황”¹⁸⁾ 이라고 칼빈은 말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칼빈은 “그러므로 [교회는] 카톨릭적 혹은 보편적이라고 말해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누이지 않는다면 - 그것은 일어날 수 없다 - 둘 혹은 세 [교회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한 머리에 의존한 것처럼 한 몸을 형성하며, 몸의 지체들처럼 연합되고 결합된다.”¹⁹⁾ 하고 말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칼빈은 보았다. 칼빈은 당시 재세례파 지도자들의 분파적 경향을 비판하면서

14) Serm 1 Tim. 3 16.

15) Comm. Ps. 19. 7

16) Inst. IV. iii. 1.

17) Comm 1 Cor. 3 22

18) Quoted in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 A Sixteenth Century Portrait*(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226.

19) Inst IV. i. 2.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양떼로부터 제외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머리 아래 한 몸으로 모으는 것을 제외하고는 희망할 안전이 없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로부터 찢어지지 않을 것이며 찢어질 수 없다. 그것에 그는 불가분리의 매듭으로 결합되어 있다. …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과의 일치를 이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된 것으로 본다.”²⁰⁾

칼빈은 삶의 순수성의 문제로 분리해 나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교리에 다소 불순성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더우기 교리들에 있어서나 성례들의 집행에 있어서 어떤 잘못들이 들어 올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교회 내의 교제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참된 교리의 모든 조항들이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그것들을 종교의 고유한 원칙들로 확정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 있다는 것 등등이다.²¹⁾

칼빈에 의하면 교리들 가운데 중심적인 것이 있고 주변적인 것이 있다. 그런 중심적인 것이 부정되면 참된 교회일 수가 없다. 그러나 “교회들 중에는 신앙의 일치에 깨뜨리지 않는, 논쟁이 되는 다른 것들이 있다.”²²⁾ 칼빈은 빌립보서 3:15을 인용하며 나서 “이것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불일치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의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지적해 주지 않는가?” 하고 묻는다. 환언하면 칼빈에게는 본질적인 교리들과 비본질적인 교리들에 대한 구별이 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교리들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20) Comm. Ezek. 13. 9.

21) Inst. IV : 12.

22) Inst IV i. 12

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칼빈은 교회 제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관대했다. 파니에(Jacques Pannier)가 지적한 것처럼 칼빈은 주교 뿐만 아니라 대주교도 인정하고 있으며, 칼빈이 비판한 것은 주교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직책을 오용하는 것이었다.²³⁾ 칼빈은 교회의 일치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당시 분열되어 있던 개신 교회의 연합을 위해 노력했다. 칼빈은 영국 교회의 대주교인 크랜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치를 논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내게 대단히 중요하므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열 개의 바다라도 건너가기를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²⁴⁾하고 말했다. 그런데 칼빈이 생각한 교회 일치는 루터파, 츠빙글리파, 영국 국교회 등 기존한 교회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일종의 세계적인 교회 연합체를 구성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⁵⁾

칼빈은 교회의 두 표지로 말씀과 성례를 들었지만, 권징도 강조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적 교리가 교회의 혼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징은 신경의 역할을 한다.”²⁶⁾ 애비스(Paul D. L. Avis)가 지적한 것처럼 칼빈의 입장은 기독교론적 중심을 철저히 견지한 루터의 입장과 권징에 강조점을 둔 후의 개혁과 전통 사이의 전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그래서 애비스는 “권징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지만 교회의 esse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bene esse에 속했다.”²⁸⁾하고 말했다. 이것은 칼빈의 권징론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고 하겠다.

칼빈은 권징의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로 권징을 통해 악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배제시킬 수 있으며, 둘째로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세째는 권징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자

23) Jacques Pannier, *Calvin et l'Épiscopat* (Strasbourg · Librairie Istra. 1927), 22~23

24) CO 14 · 314.

25) Cf Henri Clavier, *Études sur le calvinisme*(Paris · Librairie Fischbacher. 1936), 64

26) Inst. IV. xii. 1

27) Paul D. L. Avis, “The True Church’ in Reformation Theolog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0(1977), 331

28) Ibid.

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²⁹⁾

칼빈은 좋은 목사는 지나친 엄격함과 지나친 부드러움 사이의 중간 위치를 견지하는 데 성공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열성을 구실로 해서 항상 야단치며 그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 그들은 우정의 표시는 조금도 나타내 보이지 않고 다만 가혹함만 나타낸다. … 그들은 죄인들에게 걱정이나 동정의 표시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매우 비인간적으로 겹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무례하고 혐오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회중들의 비위를 맞추고 “매우 중대한 불법을 간과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그들의 감언에 의해 잘못 인도하고 파멸시킨다”³⁰⁾ 하고 칼빈은 말했다. 그는 두 번째 잘못보다 첫 번째 잘못에 더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본성상 우리는 거의 모두가 너무 성급하며, 그리고 사탄은 엄격성이라는 구실 아래 우리를 비인간적인 가혹성으로 내민다. 그 결과 비참한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버린다”³¹⁾ 칼빈이 보기에 지나친 가혹성은 교회에 큰 위협이었다. 그는 재세례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완전을 열망한다는 구실 아래 교회의 집단이나 교인들 안에 있는 어떤 불완전도 용납하지 않을 때 악마가 우리의 자만심을 부채질하여 우리가 위선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버리도록 우리를 부추긴다.”³²⁾ 칼빈은 또한 자기 인식과 동정 사이에 관련성이 있고 자기 자신의 결점에 대한 무지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엄격성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제자들을 훈련하려고 진지하고 확고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가혹한 선생들이 안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더 쉽게 용서해 준다”³³⁾ 하고 칼빈은 말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복음의 설교와 권징은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의 관계에

29) Inst IV xii 5

30) Comm Dan 4 20~22

31) Comm Matt 18 21

32) CO 7 77

33) Comm Matt 23. 4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권징이 중심적인 것이 되면 율법주의가 될 것이며, 복음의 설교만 강조하고 권징을 배제하면 감상적 자유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하겠다.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감독과 장로는 성서에서 상호 교환되는 용어로 보았다. 루터는 제롬의 견해에 따라 성서에서는 감독과 사제가 동일했다고 말한다. “엠펜도 역시 성 제롬으로부터 사제와 감독이 성서에서는 동일한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다”³⁴⁾하고 루터는 말했다. 루터는 성서에서 감독과 사제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도행전 20장과 디도서 1장을 들었다. “사도행전 20〔: 17~18, 28〕에서 성 누가는 이렇게 말한다. 즉, ‘바울이 교회 사제들을 청하여,’ 즉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장로들을 청하여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장로들이 감독이라 불리우고 있음이 분명하다”³⁵⁾하고 루터는 말했다. 또한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성 바울은 디도서 1〔: 5〕에서 ‘너는 각 성에 사제를 임명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그 후 곧 동일한 사제에 대하여 ‘이 동일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딤펜 1 : 7)하고 말한다. 그는 동일한 사람을 사제, 감독, 장로 및 감독자라고 부르는 것이 분명하다. … 하나님과 성서는 현재식의 감독들은 알지 못한다”³⁶⁾하고 루터는 말했다. 칼빈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성서에서 사용되는 ‘episcopus,’ ‘presbyter,’ ‘pastor,’ ‘minister’를 동의어들로 보았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감독들, 장로들, 목사들이라고 구별 없이 부른 것은 이 용어들을 혼용한 성서적 용법을 따른 것이다.”³⁷⁾ 또한 칼빈도 바울이 디도서 1 : 5에서 각 도시에서 장로들은 임명하라고 명령한 후 곧 1 : 7에서 “감독은…” 하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장로와 감독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용어로 보고 있다. 그리고 빌립보서 1 : 1에서 한 교회에 있는 여러 감독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으며,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감독들이라고 부른〔20 : 28〕

34) LW 39 155.

35) Ibid

36) Ibid

37) Inst. IV, iii 8

예를 들고 있다.³⁸⁾

그리고 칼빈은 디모데전서 5:17 주석에서 “이 구절을 보아 두 종류의 장로들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이 말들의 분명한 의미는 존경스럽게 잘 다스리지만 가르치는 직임을 가지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진지하고 잘 단련된 사람들을 선출했는데 그들은 … 목사들과 함께 권징을 행하고 도덕을 교정하는 검찰관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칼빈은 교회의 목사를 뽑는 방법에 대해 “적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동의와 찬성에 의해 선임될 때 우리는 목사의 이 부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³⁹⁾ 하고 말했다.

자격 있는 사람을 목사로 선출하고 또 평신도들 중 지도자를 뽑아 장로로 임직하여 교회를 처리하게 하는 장로주의는 감독주의와 맞서는 독특한 교회 제도로서 교회의 발전에 공헌한 바 크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정이라는 대의 민주주의로 나타나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칼빈이 주장한 교회의 네 직임 중 하나는 집사직이었다.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 ”고대 교회에는 항상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불우한 자들을 위한 물질을 받고 나누어 주고 보관했는데, 매일의 구제금 뿐만 아니라 재산, 세, 연금 등도 맡았다. 다른 하나는 병자들을 보살피고 간호하며 불우한 자들을 위한 구제품을 관리했다”⁴⁰⁾하고 칼빈은 말했다. 칼빈은 당시 일부 재세례파의 ‘공산주의적’ 공동체 운동에 대해 매우 고심한 것 같다. 그는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이 운동에 대해 비판하고 사유 재산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칼빈은 사도행전 2:44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광신주의자들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건전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들은 재산의 코이노니아를 주장하는데, 그것에 의해 모든 시민적 질서가 전복된다. 이 시대에 재세례파가 소요를 일으켜 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재산을 한 덩어리로 모아 놓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

38) Inst. IV iii 8

39) Inst IV iii 15

40) CO 10a 23

로 여기서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시민적 질서라는 구실 아래 자기들이 가진 것을 숨기고 가난한 자들을 횡령하고서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지 않는 한 갑절이나 의롭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의 오류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뒤섞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칼빈은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적’ 재세례파를 비판하면서 사유 재산을 옹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유한 자들의 횡포를 비난하고 있다.

칼빈은 이와 관련하여 교회 수입은 4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회법들에는 교회의 수입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교직자를 위해,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나는 교회 및 다른 건물들의 보수를 위해, 하나는 가난한 나그네와 가난한 본토민을 위해서였다. 다른 교회법들은 마지막 것을 감독에게 할당했는데, 이것은 내가 방금 말한 구분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법들이 그것을 감독 혼자 다 쓰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자에게 다 주거나 할 수 있는 감독의 사적 수입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⁴¹⁾ 그래서 칼빈은 교회 수입의 “적어도 절반”은 가난한 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²⁾ 칼빈은 고대 교회의 아카키우스 감독이 “우리 하나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 때문에 잔이나 컵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교회의 그릇들을 녹여 팔아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사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이나 곤중환 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암브로스의 말을 매우 진실한 말이라고 예찬했다.⁴³⁾

III Reformed Studies

칼빈은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 말씀 혹은 복음에 대한 강조는 그 후 나타난 청교도 운동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영국의 청교도 운동은 네덜란드의 청교 운동,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영국의 복음주의적 부흥 운동은 청교도 운동의 영향이었으며 미국의 대각성

41) Inst. IV. iv. 7.

42) Inst. IV. v. 16

43) Inst. IV iv 8

운동은 네덜란드의 청교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근대 이후의 모든 복음주의적 운동은 종교 개혁자 루터와 칼빈에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으며, 이 운동으로 인해 교회가 갱신되고 부흥될 수 있었다. 또한 권징에 대한 칼빈의 강조는 복음주의적 부흥 운동이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항상 회개 운동을 동반하는 운동이 되게 했다.

칼빈이 제시한 장로주의적 교회 정치 형태는 세속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자극이 되었다. 칼빈은 고대 철학자들의 구분에 따라 정부 형태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으로 나누고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정을 가장 나은 정부 형태로 제시했다. 칼빈은 혼합정이 최선의 정부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즉, 군주정에서 왕이 자기 뜻을 정의에 따라 조절하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 결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바람직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그들은 서로 돕고 서로 가르치고 충고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잘못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⁴⁴⁾ “만약 우리가 법관과 관료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면 (…) 그것은 탁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시키며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⁴⁵⁾ “만약 우리가 인간의 정부에 대해 논의한다면 우리는 자유 국가에 사는 것이 제후 아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⁴⁶⁾ “이유 없이 명령을 내리는 제후를 가지는 것보다 선출받아 그 직임을 수행하며 법을 준수하는 통치자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지지할 만한 일이다.”⁴⁷⁾ 하고 칼빈을 말했다.

그러나 세네비에르(Marc-Edouard Chenevière)는 “만약 프랑스가 프랑스 종교 개혁에 대해 우호적인 왕이나 아니면 적어도 단순히 중립적인 왕에 의해 통치되었다면 칼빈의 설교와 강해에는 아마 군주정의 주제에 대한 불평이 들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귀족정에 대한 칼빈의 편애는 사실상 군주정 형태에 대한 배격을 의미하지 않는다”⁴⁸⁾하고 말했다. 그렇지만 당시 프랑스에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44) Inst. IV xx. 8

45) Serm. Deut 16 18~19

46) Serm Deut 17 14~18

47) Serm Deut 17. 14~18.

48) Marc-Edouard Chenevière, *La Pensée politique de Calvin*(Genève :

왕이 있었다면 칼빈이 설교와 성서 강해를 통해 왕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세네비에르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록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칼빈이 왕들에 대해 비판한 다른 비행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여전히 그런 비행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일인 군주가 지배하는 정부 형태는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한편 에쎄(Hans H. Esser)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칼빈은 군주 체제 정치 이념으로 기울어졌다”⁴⁹⁾하고 말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허드슨이 주장한 것처럼⁵⁰⁾, 칼빈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민주 체제 정치 이념으로 기울어졌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는 귀족정을 좋게 생각했으나 제네바에서 7년간 지나고 난 뒤에는 “귀족정 혹은 귀족정과 민주정이 혼합된 형태”⁵¹⁾를 좋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후 16년 뒤 155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관장하는 것이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것”⁵²⁾ 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허드슨이 지적한 것처럼⁵³⁾ 미국 혁명의 지도자들이 옹호한 정부 형태도 바로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이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모든 국가에서 군주정을 폐지하고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칼빈은 세계 전체를 보면 여러 종류의 정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기존 정부 형태를 바꾸려 하는 것은 “어리석고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로운 사상”⁵⁴⁾ 이라고 했다. 칼빈이 군주 폐기론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전혀 무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왜냐하면 영국과 같은 입헌 군주제 국가는 군주제를 폐기하지 않고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Slatkine Reprints, 1970), 228.

49) Hans H. Esser, “칼빈의 政治理論,” 장일조 역, 『세계와 敎敎』 71(1979. 6), 43.

50) Winthrop S Hudson, “Democratic Freedom and Religious Faith in the Reformed Tradition,” *Church History* 15(1946), 190

51) Inst. IV. xx. 8.

52) Inst. IV. xx. 8.

53) Hudson, 190.

54) Inst. IV. xx. 8

독재에 대한 저항에 대해 칼빈은 아무 관직이 없는 사인(私人)에게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의회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강조했다. “만약 이제 왕들의 방자함을 견제하기 위해 임명된 백성의 관리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이 그들의 임무에 따라 왕들의 심한 방자함을 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만약 그들이 낮은 일반 민중을 난폭하게 습격하고 욕보이는 왕들에 대해 눈을 감아 준다면 그들의 가식은 극악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나는 선언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배정에 의해 백성의 보호자들로 임명되었음을 알면서 기만적으로 백성의 자유를 배반하기 때문이다.”⁵⁵⁾ 칼빈은 백성의 관리에게만 저항권을 인정하고 사인에게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인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관리에 대한 복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떠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⁵⁶⁾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악한 선포에 맹종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다. 예언자는 백성들이 사악한 왕의 칙령을 받아들인다고 심하게 책망했다. 주님은 왕들 중의 왕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 때문에 왕들에게 복종하는 우리가 왕들을 만족케 하기 위해 주님을 불만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칼빈은 말했다.⁵⁷⁾

독재자에 대한 백성의 관리의 저항권을 인정한 칼빈의 가르침은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미국 등지에서 민권을 강화시키고 민주주의적 방향으로 나가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프랑스에서는 칼빈주의적 위그노 운동이 실패함으로써 한동안 절대 왕정으로 나갔지만 위그노 운동 때 나온 저항 사상은 마침내 프랑스 시민 혁명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1579년에 의명의 위그노에 의해 출판된 「폭군 토벌론」에서는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에 인간들에게 위임한 것이며, 다시 민중들이 계약에 의해 그 권력을 왕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와 왕이 민중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폭군이 될 때 민중들이 저항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칼빈의 제자인 존 녹스와 ‘하나님의 말씀의 회중’이라는 집단이 협력해서 매리 여왕을

55) Inst. IV xx. 31

56) Inst. IV. xx. 32

57) Inst. IV xx. 32

촉출하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종교 개혁을 완성했다. 영국에서는 칼빈주의자들인 청교도들이 1642년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 국왕을 처형하고 공화정을 실시했다.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인 크롬웰이 죽고 평등주의자들의 과격한 요구에 불안을 느낀 중산층이 왕당파로 기울어짐으로 1660년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청교도적인 민주주의의 이상은 지속되었고 1688년 명예 혁명으로 영국은 세계 최초로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되었다. 영국에서 박해받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개척한 미국은 일찍부터 민주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마침내 독립 전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되었다. 유럽과 북미에서 시작한 민주주의 운동은 그 후 지금까지 전세계에 확산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확산이 계속될 것이다.

독일의 종교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 주장한 것처럼 칼빈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베버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정당한 비판이 있었으며 칼빈주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했을 것이지만 칼빈주의로 인해 이 발전이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칼빈 당시의 제네바는 주위에 농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농업 생산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상업 활동을 해야 했다. 그래서 루터가 “농업을 증가시키고 상업을 감소시키는 것이 훨씬 더 경건한 일”⁵⁸⁾이라고 말함으로써 농업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칼빈은 상공업을 천부적인 직업으로 보았으며 상인들의 매매 활동이 건전한 사회 생활에 있어서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상업의 거래 없이 공적 정부가 지탱될 수 없다”⁵⁹⁾하고 칼빈은 말했다. 칼빈은 상품을 쉽게 수입하고 수출할 수 있는 강이 있는 지역은 급속도로 번영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으며, 무역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상인들은 부지런히 활동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불편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면서 이윤을 남긴다고 말했다.⁶⁰⁾

중세 교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라 돈에 증식성이 없다고 본 것과는 달리 칼빈은 산업 자금의 증식성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이자를 받는 것을 인정했다.

58) Martin Luther, *Three Treatises*(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108

59) Comm. Isa 24 2

60) Comm. Ps. 15 5.

돈은 돈을 낳지 않는다고 한 성 암브로스오와 크리소스톰의 이론은 내 판단으로는 너무 피상적이다. 바다가 무엇을 낳는가? 땅이 무엇을 낳는가? 나는 집을 빌려 주고 수입을 얻는다. 거기서 돈이 자라기 때문인가?...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소유에서보다 상업에서 돈이 더 결실이 있지 않는가? 농지를 빌려 주고 지대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고 돈을 빌려 주고 그 열매를 받는 것은 불법적이란 말인가?... 상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이윤을 얻는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라고 말할 것이다. 확실히 돈을 금고 속에 넣어 두면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동들도 알고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자는 이 돈을 한가하게 간직하여 아무 소득도 얻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윤은 돈 자체로부터 오지 않으나, 그러나 그것이 유통됨으로써 온다.⁶¹⁾

이처럼 칼빈은 상공업을 지지했으며 그리고 상공인들은 칼빈의 가르침을 선호했다. 제네바에는 수많은 상공인들이 이주해 왔으며, 프랑스에서는 낭트 칙령이 폐지되어 칼빈주의자들이 프랑스를 떠남으로써 산업이 침체해졌으며 이들 칼빈주의자들은 네덜란드 등 가는 곳곳마다 산업을 부흥시켰다.

칼빈은 당시 재세례파의 공산주의적 사상과 대결하면서 사유재산 제도는 타락한 인간들을 견제하기 위해 준 신적 제도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재산의 공유 제도를 부정하긴 했지만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칼빈은 “주님은 우리가 기금이 허락하는 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서 풍부한 사람도 없고 결핍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에게 명한다”⁶²⁾고 말했다. 제네바의 구빈원에는 집사들이 파견되어 환자, 노인,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다. 실업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해 줌과 동시에 구걸을 금지시켜 모든 사람이 일하도록 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야 했으며 교사의 봉급을 정부가 담당함으로써 가난한 학생들에게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게 했다. 이같이 제네바가 지향했던 복지 사회 제도는 현대 서구 사회의

61) CO 10a 247

62) Comm 2 Cor 8 14



모형이 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에 스위스, 독일, 미국 등지에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 기독교적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은 대개가 칼빈주의적 전통에서 있던 사람들이었다.

IV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칼빈의 신학과 목회는 서구와 북미의 종교, 정치, 경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서구 문화의 확산으로 전세계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복음의 말씀과 권징을 함께 강조하면서 항상 개혁하는 교회를 주장한 칼빈주의는 교회의 개혁과 부흥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이 정신이 살아 있는 한 계속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갱신해 갈 것이다. 칼빈주의의 장로주의는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쳐 왔으며, 지금도 칼빈의 이름을 알든 모르든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계속 확산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경제 체도를 인정하면서도 복지 사회를 지향한 칼빈의 가르침은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있는 현재에 와서 그 가치가 더욱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